

한방 쏘였다고 방심하다간 전신 알레르기 반응 쇼크사도

건강 바로 알기 벌쏘임

김상훈 광주병원 원장

해마다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나 벌초를 하는 초가들엔 응급실에 벌쏘임 환자들이 늘어난다.

가끔 어지럽증, 숨 가쁨을 호소해 119구급차에 실려오는 환자들도 부쩍 늘어나는 시기이다. 119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벌쏘임 환자도 늘어나지만 처마 밑에 말벌집이 갑자기 생겼다고 벌집 제거를 요청하는 신고도 많아지는 시기라고 말한다.

실제로 소방청은 최근 벌쏘임 경보를 발령했다. 벌집 제거 출동 주 1만회, 벌쏘임 사고 주 370회 이상이라는 벌쏘임 경보 기준을 보면 주변에 벌집과 벌쏘임 사고가 얼마나 흔한지 새삼 놀라게 된다.

특히 곧 다가올 추석은 더 위험한 시기이다. 보통 벌쏘임으로 인한 사망자의 30%가량이 추석에 벌초하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쇼크 일으켜 사망까지도=벌에 쏘였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대부분 가려움증과 통증이고, 이것은 벌독에 반응하는 인체의 히스타민으로 인한 면역 알레르기 반응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히스타민이 매우 급격히 분비되면서 쇼크까지 일으키게 된다. 이는 노출 후 수분에서 수 시간 내에 일어나는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이며, 주로 제1형

대부분 가려움증·통증이나 과민 반응엔 급성 신부전 등 발생 할 수도 벌독 알레르기 있다면 성묘시 항히스타민제 등 비상약 준비해야 안전

즉시형 과민 반응을 통해 일어난다. 오심, 구토, 가려움증 및 두드러기, 혈관부종, 기관지 경련, 기도 부종 그리고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관상동맥중후군, 부정맥,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나타나고 드문 경우엔 혈관내 용혈, 횡문근융해증 등에 의한 급성 신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전신 면역 반응으로 쇼크를 일으키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벌독으로 인한 쇼크는 모든 사람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벌쏘임 환자의 약 0.5%에서 나타난다. 또한 벌독 중독 치사율은 성인에서는 500회에서 1500회 정도의 벌 쏘임이라고 하니 단순히 벌에 많이 쏘인 것만으로는 고통은 심할지라도 사람이 사망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이는 벌독 자체의 독성보다는 인체의 면역반응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단 한방만 쏘였다고 해도 단 10분 내에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다량히 응급처치로 쇼크에서 회복된 사람도 다시 벌쏘임을 당하면 또 다시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내가 혹시라도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까운 병원에서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면 된다.

◇벌초나 야외활동시 밝은 옷 입어야=벌에 쏘이게 되면 우선 벌집으로부터 20m 이상 빨리 피해야 한다. 말벌의 경우 벌집 가까이 있는 경우 침의 독성

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나 벌집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경우 떼지어 공격하는 빈도가 낮아진다. 벌떼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피부에 벌침이 박혀 있는지 살펴본다. 벌침이 피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벌침을 손톱이나 신용카드 같은 것을 이용하여 침을 피부와 평행하게 옆으로 긁어주면서 제거한다.

벌에 쏘인 자리를 비누와 물로 씻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쏘인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15~10분간 대주면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감소 및 독소의 흡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전에 벌독 알레르기를 경험했던 환자나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벌독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게 된 환자는 다시 벌에 쏘이거나 한의원에서 봉독 치료를 받으면 또 다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벌독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벌이 많은 시기에 산행을 피해야하고 한의원에서 봉독요법을 받으면 안전하다. 만약 벌독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묘를 꼭 가야할 상황이라면 사전에 병원에서 에피네프린 주사나 항히스타민제 등 비상 응급약을 미리 처방받아 소지한 후 성묘를 가는 것이 안전하다. 사전에 처방받은 에피네프린 주사를 벌에 쏘인 즉시 허벅지에 스스로 주사함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벌에 쏘인 후 치료도 중요하지만 벌에 쏘이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벌이 많은 지역의



광주병원 김상훈 원장이 벌에 쏘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방문을 가급적 삼가고, 등산이나 벌초 등을 갈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고 벌이 있는 곳에서 뛰거나 빨리 움직여서 벌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또 집 주위에 벌집이 있다면 119의 도움을 받아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말벌과 땅벌들이 검정 계열의 어두운 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인다. 이는 굵거나 오소리 등 벌의 천적들이 검은색 털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쏘임이 많은 이 시기에 벌초나 야외활동을 할 때는 되도록 밝은색 옷을 입어 벌을 자극하는 것을 줄이고, 밝은 색의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광주지역 최초 '의료기기 시험기관' 지정 1년 기업 의료기기 연구·개발 든든한 지원군 자리매김

전남대학교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가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 지정 1년 만에 국내 굴지의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 인증을 의뢰하는 대표 의료기기 시험인증 연구센터로 자리잡았다.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 교수·이하 연구센터)는 총 30억원(시비 20억·민자 10억원)을 투입해 시설과 장비·인력 등을 구축, 작년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연구센터는 지난 1년간 의료기기 제품과 치과임플란트 인증 등 수많은 시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센터는 짧은 업무수행 역사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은 물론 상당수 타 지역 기업들로부터 시험 인증 의뢰를 받고 있다.

특히 연구센터의 의료기기 시험검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이 입증되면서 국내 최대 기업들의 의뢰가 잇따르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의 대표 주자인 오스템은 최근 신제품의 성능을 연구·분석하기 위해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에 시험을 의뢰해왔다. 또한 대구에 본사를 둔 메가젠 임플란트 기업 대표와 기술·속련도·정확도를 직접 체험한 뒤 임플란트 인증 성능검사를 의뢰했다.

더불어 2021년에는GLP(비임상 시험실) 시설을 구축해 식약처

부터 GLP 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in-vitro' 상의 비 임상시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GLP를 승인받으면 좀 더 폭 넓은 의료기기의 제품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가 지역 및 전국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과 재정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대구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비롯해 전국 3곳의 의료기기 시험 관련 연구센터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출연기관이지만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는 대학 소속의 독자 기관으로서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는 기업들의 시험 의뢰에 따른 비용만으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폭 넓은 인증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상원(전남대치과병원 보철과 교수)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장은 "센터가 폭 넓은 인증시험 항목을 추가하려면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되고 전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 지역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센터 인프라 구축과 전문시험연구원 인력 확충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치과병원 3층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예방·관리 화순전남대병원 '복지부장관상'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신명근)이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2019년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시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33개 권역중심병원과 190개 참여병원을 지정, 지난해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권역중심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남권 14개 참여병원들과의 의료 네트워크 구축, 인력교육과 워크숍, 기술 자문 등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활동을 주도해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청정병원'으로서, 이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가 지정 응급입원치료병상도 신속히 마련, 공간 모의상황별 훈련도 꾸준히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이진 감염관리실장은 "전국 국립대병원 최초로 국제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등 탄탄한 의료역량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선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